



## ‘올 뉴 K3’ 파워트레인 최초 적용 “힘은 대형 세단, 연비는 경차급”



6년 만에 풀체인지 된 2세대 모델  
‘스마트스트림’ 엔진·변속기 탑재  
다이나믹한 외관 ‘리틀스텰어’ 호평

트림’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별 연비·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차량 성능에 대한 운전자의 다양한 기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 연비 개선 ▲실용 성능 향상 ▲배출 가스 저감 등을 목표로 개발됐다.

스마트스트림 첫 적용 차량인 올 뉴 K3는 2012년 출시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풀 체인지 모델로, 국내 시장에서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 뉴 K3는 경제성



기아차 올 뉴 K3 내장.

을 중시하는 ‘준중형 세단’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자 15.2km/L의 ‘경차급 연비’는 물론 성능 및 내구성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5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올 뉴 K3는 볼륨감 있고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으로 ‘리틀스텰어’라는 호평받은 바 있다. 올 뉴

K3의 실내공간은 수평으로 뻗은 크롬 가니쉬를 적용한 센터페시아를 통해 와이드한 디자인을,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 원형 사이드 에어벤트를 통해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했다.

또 운전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2단 콘솔 트레이, 조작이 용이한 버튼 레이아웃 등 편의성과 실용성을 향상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자동차가 2월 출시를 앞둔 준중형 세단 ‘올 뉴 K3’에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적용한다. 올 뉴 K3는 고연비, 실용 성능, 친환경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신규 개발됐다.

기아차는 31일 올 뉴 K3에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 G1.6’ 가솔린 엔진 및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가 첫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 뉴 K3는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 및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의 최적 조합을 통해 동일 차급을 뛰어넘어 경차급 연비에 준하는 수준인 15.2km/L를 공식 인증받았다. 이는 기존 K3 가솔린 모델 대비 10% 이상 개선된 수치다.

올 뉴 K3에 신규 탑재된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은 제원 최적화로 기본 연비 향상 및 기술 확장성에 유리하도록 설계됐으며, 다양한 연비 신기술도 활용됐다.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듀얼 포트 연료분사 시스템(DPFI)이 적용됐다. 듀얼 인젝터를 통해 연료 분사 시기와 분사 비율을 최적화한 다양한 분사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싱글 인젝터 대비 연소 효율을 대폭 개선했다.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는 운전자의 의도와 주행 상태에 따른 다양한 변속 모드를 구현함으로써 변속 응답성, 직결감 등 주행 품질을 향상시켜 운전의 재미를 선사하도록 개발됐다. 운전자가 변속을 체감할 수 있는 AT 모사 변속 패턴과 매뉴얼 모드를 적용해 자동변속기(AT) 또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와 유사한 느낌의 빠르고 절도 있는 변속감을 구현했다.

기아차는 지난 5년간 엔진 및 변속기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스마트스

## 볼보트럭 ‘AS망 확대’ 올해도 1위 잇는다 현대차 “상용차 고객과 디지털 소통강화”

올해 3190대 판매 목표

지난해 수입 상용차(트럭과 특장차 등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볼보트럭코리아가 애프터서비스(AS)망 확충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다.

볼보트럭은 3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서비스 센터 1개를 추가 설립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서비스 센터를 40개 이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간 정비서비스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재 볼보트럭 사장은 “지난해는 수입상용차 최초로 누적판매 2만대를 돌파해 2만 1344대 달성했다”며 “올해는 기존 고객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센터 확충을 통해 업타임(고장으로 차량이 멈춰 있는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볼보트럭은 일년 내내 선두를 지켰던 비결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꼽았다. 볼보트럭은 2016년 7월부터 야간정비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현재 지역서비스센터 3곳과 비봉사업소를 포함한 총 14개 서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아미홀에서 2018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스 센터에서 야간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고객 방문율이 높은 인천 지점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총 17시간을 운영한다. 향후 3교대(24시간 정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보트럭의 지난해 총판매량은 약 2900대로 전년 판매량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판매목표는 전년과 비교해 10% 성장한 3190대로 설정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 트럭 & 버스 서비스’ 앱 출시  
맞춤 후 관리·정비 등 콘텐츠 제공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고객과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상용차 고객 전용 차량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인 ‘현대 트럭 & 버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 앱은 화면 구성 직관성을 높이고 자가 관리 비중이 높은 상용차 고객의 특성을 반영, 차량관리 및 자가 정비 관련 콘텐츠를 집약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용차 퀵 가이드(주요 경고등 등 FAQ) ▲운전자 자가학습 콘텐츠 ▲상용차 신기술 정보 제공 ▲고장 정보 검색 ▲정비 예약 ▲모바일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



현대자동차 모델이 상용차 서비스 앱 ‘현대 트럭 & 버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리(A/S)에 대한 접근성도 높였다.

이 외에도 판매·부품·블루핸즈 네트워크를 위치기반으로 안내하고 실시간 도로 상황과 휴게소 정보를 알려줘 도로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상용차

고객 삶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현대차는 소개했다.

현대차는 범용정보 기반 개방형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실시간 이력, 소모품 교환 알림 등 고객 정보에 기반한 개인화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선보인다. 향후에는 실시간 고장진단, 연비 순위 측정 등 운행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모바일 차량관리 플랫폼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용차 고객은 주로 생계수단 목적으로 차량을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차량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며 “별도 앱을 통해 더욱 차별화된 상용 모바일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이달 초 전 세계 상용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상용 글로벌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양성운 기자

SK이노베이션

## 비정유 영업의 2조 돌파... 딥체인지 ‘성과’

SK이노베이션의 비정유 부문 영업 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화학과 유틸리티 사업을 강화해온 딥체인지 2.0의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은 3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13조1195억원, 영업이익 845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조791억원에서 30.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491억원에서 0.5% 줄어든 수치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2016년 4분기 1575억원에서 2017년 4분기 3655억원으로 132% 늘어났다.

연간으로는 매출 46조8265억원, 영업이익 3조2343억원을 달성했다. 전사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2016년

실적을 소폭 넘어섰다. 전체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비정유 부문의 약진이다. SK이노베이션은 화학, 유틸리티, 석유개발사업에서 영업이익 2조705억원을 기록했다. 비정유 부문 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화학사업이 매출 9조3392억원, 영업이익 1조377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선제적으로 파라자일렌 중심의 고부가 화학설비로 탈바꿈한 SK인천석유화학이 영업이익 4146억원을 달성한데 힘입어 화학 사업 영업이익이 1조원을 연이어 돌파했다. SK이노베이션의 비정유 중심 성장을 화학이 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 히잡용 세탁기·아얌고랭 전문 오븐... ‘현지화의 바이블’

(동남아 대표 음식)

동부대우전자

현지 생활맞춤형 제품으로 인기  
냉장고·세탁기 등 판매량 급증

동부대우전자가 생활양식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을 무기로 해외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3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의 해외 시장 누적판매 대수가 500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이 회사는 1998년부터 20년 가량 현지 특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의 세탁기는 수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동 시장에 수출하는 드림세탁기는 전통 의복인 ‘히잡’을 세탁할 수 있는 독특한 코스가 탑재됐다.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손빨래하는 방식을 기능화한 ‘이슬라미 린스’ 코스는 얇고 부드러운 히잡이 망가지지 않도록 세탁해준다. 코란에 나오는 히잡 세탁 규율에 맞춰 세탁 종료 후 세탁조에 물을 35% 정도 채우고, 탈수코스 진



동부대우전자가 중동에서 선보인 자물쇠 냉장고를 소비자가 직접 열어보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행 전 세탁조를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2회씩·30초간 회전시켜 세제의 식을 표현한다. 이슬람 문화를 반영한 이 제품은 지난 2012년 출시 후 매년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중동 시장의 국민세탁기로 자리 잡았다.

현지인들의 요리 걱정을 덜어준 제품들도 인기다. 동부대우전자가 지난 2009년 중남미 공략을 위해 선보인 ‘셰프멕시 카노’ 복합오븐은 멕시코 스테이크, 아스

텍 스프 등 10여개 전통 요리를 자동메뉴를 통해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 셰프멕시 카노가 멕시코 전자레인지 시장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덕에 동부대우전자는 멕시코 전자레인지 시장 점유율 2위(24%)를 차지할 수 있었다.

동부대우전자는 2015년 동남아에 특화된 ‘아얌고랭’ 프라이어오븐도 출시했다. 전자레인지, 그릴, 오븐, 프라이어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동남아 대표 음식인 아얌고랭, 사테야얌, 나시우득 등을 기름 없이 버튼 하나로 요리하는 기능이 더해져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이 안 열리는’ 냉장고도 인기를 얻는다. 물이 귀한 중동에서는 외부인이나 아이들이 함부로 음식을 꺼내지 못하도록 냉장고에 시건장치를 하는데, 냉장고 자체에 자물쇠 기능을 넣어 불편함을 해소해준 것. 현재 누적판매 210만대를 돌파한 이 제품은 동부대우전자 중동지역 냉장고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효과 제품으로 거듭났다. /오세성 기자